

# 1. 한국 양악 100년 야사

나 운 영

이 글은 1991년 봄부터 겨울까지 4회에 걸쳐 계간 「음악교육」에 기고하셨던 원고를 재편집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레고리안 성가가 처음 전파된 것은 1876년이었고, 그 10년후인 1887년에 배재학당에서 찬송가로 음악수업을 시작함으로써 서양음악이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교육되기 시작했다. 그후 100여년, 우리 음악은 세계속에서 그 의미를 찾게 되었다. 음악교육에서는 한국양악 100년공간의 뒤안길에 묻힌 애환을 더듬는다.

1984년은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전파된 지 200주년을 맞은 해였고, 개신교 전파 100주년이 되는 해였다. 교계에서는 이 뜻깊은 해를 맞아 각각 의미있는 행사들을 가졌었다.

천주교나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에 양악(그레고리안 성가 또는 찬송가)이 함께 들어왔다고 추정한다면 <한국 양악 200년 야사>라고 제목을 고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논문 「한국천주교회의 성가와 성가집」(차인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그레고리안 성가가 처음으로 전파된 것은 1876년이고, 그레고리안 성가를 처음 가르쳤던 사실은 1887년 서울 용산 예수성심학교의 교과과정 중<예전(禮典) 그레고리안 성가>가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신교에서는 1892년<찬미가>가 발행되기 전까지는 중국말로 된 찬송가를 불렀었고, 1886년에 창립된 배재학당이 바로 다음해부터 음악수업을 시작하여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니 정확하게 계산한다면 <양악 115년 야사>라고 해야 옳을 듯도 하나, 편의상 통념대로 100년으로 해두기로 한다. <sup>주1)</sup>

양악 100년 야사를 쓰기 시작하기 전에 또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김인식(金仁湜)부터 시작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백우용(白禹鏞)부터 시작하느냐의 문제이다. 오늘날 김인식을 필두로 이상준(李尙俊)-김형준(金亨俊)-김영환(金永煥)-홍난파(洪蘭破)-현제명(玄濟明)-계정식(桂貞植) 순으로 엮어 나가는 것이 하나의 상식처럼 되어있으나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 1) Franz Eckert(1852~1916), 2) 백우용(1880~1950), 3) 정사인(1881~1958),
- 4) 이상준(1884~1948), 5) 김형준(1884~?), 6) 김인식(1885~1962),
- 7) 박윤근(1891~1989), 8) 김인환(1891~1947), 9) 김영환(1892~1977),
- 10) 홍난파(1898~1941), 11) 박경호(1899~1979), 12) 박태준(1900~1986),
- 13) 안기영(1900~1980), 14) 김재훈(1900~1951), 15) 김문보(1900~?),
- 16) 채동선(1901~1953), 17) 현제명(1902~1960), 18) 윤극영(1903~1988),
- 19) 계정식(1904~1975).

위와같이 F.Eckert, 백우용, 정사인, 박윤근, 김인환, 박경호, 박태준, 안기영, 김재훈, 김문보, 채동선, 윤극영, 계정식 등은 너무도 소외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물론 개신교의 찬송가를 중심으로 양악 100년 야사를 생각한다면 김인식, 이상준, 김형준을 의당 내세워야겠지만, 선

---

주1) 천주교의 최초의 성가집인 <조선어성가>(68곡)는 1924년에 나왔으니, 비록 개신교의 <찬미가>(27곡)가 가사만으로 된 무곡(無曲)찬송가라 하더라도 32년이나 뒤졌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100년 야사로 해두는데 있어서 일단 수긍이 갈 줄로 믿는다.

후배 관계로 보나 그들이 다루었던 연주 곡목으로 보나 업적으로 보나 지나친 편견을 갖는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좀 새로운 관점에 입각해서 필자 나름대로의 야사를 엮어 보기로 한다.

첫째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악보.악서의 출판역사(1905~1925)를 더듬어본다면 대략 다음의 도표와 같다.

번호	연대	책이름	편.저자	출판사
1	1905	중등창가집	이성식	
2	1907	골오창가/말 잘하는 사위	홍영후	광익서관
3	1910	보통교육 창가집 제1집		학부
4		악전교과서	이기종	
5	1911	보통교육 창가집 제1집	조선총독부	
6	1912	교과적용 보통창가집(전)	김인식	보급서관
7	1913	풍금독습 중등창가집	이각종	
8	1914	조선구악 영산회상	김인식	장문당서점
9		신편창가집(쑤)	조선총독부	
10		조선속곡집 상권	이상준	조선복음인쇄소
11	1916	조선음률보 제1집	김학규	인학서관/광동서관
12		보통 악전대요	이상준	
13		악전대요	홍영후	
14		통속 창가집	홍영후	박문서관
15	1917	조선고가집	이상준	
16		조선정악보 3편	홍영후	광익서관
17	1918	최신창가집 쑤	이상준	박문서관
18	1920	광익창가집	홍영후	광익서관
19	1921	신선속곡집	이상준	
20		봉가업무환우?	정경휘	
21		풍금독습 중등창가집	이상준	
22		조선명승지리창가	정경휘	
23		동서위인창가	정경휘	광문서시
24	1922	신유행가곡집	이상준	
25		20세기청년여자창가	정경운	광문서시
26	1923	신유행창가	이상준	
27		음악대해	한영길, 박경호	평양야소교서관
28	1924	낙원창가	정경휘	
29	1925	세계유행명곡집	강의영	영창서관
30		조선지리경개창가	정경휘	광문서시
31		세계명작합창가집	홍난파	연악회

1) 번호 1, 2, 3, 5, 6, 7, 9, 14, 17, 18,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은 모두가 동요를 포함한 창가집인데, 번호3, 5, 9, 17 등에는 일본노래가 들어 있으며, 대부분이 찬송가를 포함한 서양곡조에 작사한 것들이다.

특히 이상준 작사.작곡을 비롯해서 김인식 작사.작곡과 백우용.노영호 등의 작곡이 많이 들어있다.

2) 번호 4, 12, 13, 27은 서양악보를 읽는 법에 대한 책인데,

번호4(악전교과서)는 아직 발굴되지 않았고,

번호12(보통 악전대요)는 2월 29일 발행이고,

번호13(악전대요)은 4월 10일 발행이나 후자가 훨씬 내용이 충실하다.

3) 번호 8, 10, 11, 15, 16, 19는 우리나라 속악을 서양악보로 옮긴 것으로서, 특히 이상준의 업적이 크며, 번호 8(조선구악영산회상), 번호16(조선정악보3편)은 우리나라 정악(正樂)을 채보해서, 역시 서양악보로 옮긴 것이니 이들 선구자가 소위 양악인(?)으로서 국악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가졌었다는 점은 크게 주목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

된다.

(비록 출판은 되지 않았지만 김형준은 우리 국악중에서 가곡.가사를 채보한 원고를 제자인 필자에게 보여준 일이 있으니, 개화기에 있어서의 양악 개척자인 이상준, 김인식, 김형준, 흥난파의 선각자적인 업적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4) 번호 17(최신창가집 전)에 관해서는 별지의 광고문에 소개된「최신 창가집」(광익서관 발행)과 동일본인지 또는 발행소가 바뀌어 박문서관 발행으로 출판된 것인지 확실치가 않다.

둘째로 김인식, 이상준, 김형준, 백우용, 정사인에 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 김인식 (金仁湜, 1885~1962)

김인식은 1885년 9월 19일생(평양부 강서)으로서 1904년 송실중학을 졸업하고 1905년 평양 서문밖 보통학교에서 연합운동회때 부르기 위해<학도가>를 작사.작곡하였다. 1907년 송실대학 3년을 수료한 다음 미국유학을 꿈꾸고 우선 서울에 올라왔으나, 음악교육자로서 사명을 통감한 나머지 유학을 단념하고, 1908년에 중앙기독교청년회관(YMCA), 기호(畿湖)학교, 진명여학교, 오성학교, 경신학교, 배재학교에서는 1940년까지 근무했으며, 1911년에 조선정악전습소(朝鮮正樂傳習所)의 서양악부교사에 취임하여 이상준, 흥난파를 가르쳤고 1912년에 「보통창가집」을, 1914년에 「조선구악 영산회상」(양금보)을 출판했다.

<학도가>는 우리나라 최초의 창가작곡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서양 찬송가의 모방에서 벗어난 곡으로서 <레#>이 한번 나올 뿐 모두 5음 음계로 되어 있고, 특히 종지음이 <레>인 것이 주목할 만하여, 매우 한국적인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는 <학도가>, <포포가>, <부모의 은덕>, <국기가>, <전진가> 등의 작사.작곡은 물론이고, <피골새>(아름답고 맑은 피골리 소리.....), <잔아>, <시골 찬양대>, <치하하세>, <할렐루야>(헨델작곡 메시아 중에서)를 비롯하여 8.15해방후까지 널리 사용되었던 합동찬송가중 100여편의 가사를 번역하였으니, 이상준, 김형준과 함께 그도 작곡.작사에 매우 능했던 것을 알 수 있다.<sup>주2)</sup>

한편 그는 1908년에 우리나라 최초의「경성찬양대」(남성합창)를 조직했고, 그후에 종교(宗橋)교회에서 혼성합창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했으니 백우용, 정사인, 김형준이 관악(管樂)운동에 주력한데 비해 그는 합창운동에 심혈을 기울임으로써 교회음악 발전에도 큰 업적을 남긴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그에게는 많은 일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몇 가지 만을 소개한다면, 첫째로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바이올린 교사로서 조선정악전습소 서양악과에서 흥난파에게 바이올린을 장2도 낮게 조율해서 가르쳤다고 하며, 둘째로 합창지휘를 할 때에는 왼손을 양복바지 호주머니에 넣은 채로 오른손만으로 지휘를 했고, 셋째로 <애국가>의 작사자가 안창호나 윤치호가 아니라 자신이라고 증언함으로써 하나의 문제점을 던져 놓았는데, 그가 작사한 것을 진명여학교에서 가르쳤으며, 윤치호가 교장으로 있던 개성 송도고보에 강사로 출강했을 때에도 가르쳤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기도 하다.

끝으로 개인이 편찬한 우리나라 최초의 창가집인 그의「보통창가집 쏜」의 목차를 소개한다.



- |              |              |       |             |           |
|--------------|--------------|-------|-------------|-----------|
| 1. 소천(小川)    | 2. 가마귀       | 3. 명월 | 4. 나뉘       | 5. 입은 하나요 |
| 6. 부모의 은덕(1) | 7. 부모의 은덕(2) |       | 8. 사의 은(師恩) | 9. 소제(掃除) |
| 10. 성(星)     | 11. 귀안(歸雁)   |       | 12. 시계      | 13. 태평양행  |
| 14. 일요일      | 15. 등산       |       | 16. 망향      | 17. 석별    |
| 18. 고별       | 19. 석음(夕陰)   |       | 20. 권학(1)   | 21. 권학(2) |
| 22. 추국(秋鞠)   | 23. 걸 넘버쓰    |       | 24. 고향      | 25. 학우    |
| 26. 압으로      | 27. 춘        |       | 28. 수학여행    | 29. 우승기   |
| 30. 세계지리가    | 31. 졸업식가     |       |             |           |

이상준, 김형준, 백우용, 정사인은 작곡.작사.역가.작가에 있어서 자신의 이름을 밝혔으나 그는 자신의 작품인<부모

주2) 당시의 가사번역은 흔히 일본말 번역가사를 우리말로 다시 옮겼으나, 그는 일본말을 전혀 몰랐으므로 영어 원어 가사를 직접 번역한 것이 분명하다.

의 은덕(1))에 있어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으니, 이 또한 겸손지덕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의 작품은 장손인 김웅길(金雄吉, 음악가. 추강음악학원장)에 의해 오늘날도 보존되고 있다.) 주3)

## 이상준(李尙俊, 1884~1948)

이상준은 1884년 7월 21일생(황해도 재령)으로서 1894년 서울에서 피어선 성경학원을 졸업. 1897년 새문안교회의 찬양대를 지휘했고, 1898년 평양 대성학교 음악교사로 취임했다. 1900년 다시 서울에 와서 보성고보, 휘문고보, 숙명여고, 진명여고의 음악교사로 활동했다. 1913년에 조선정악전습소의 조선악 가남창과(歌男唱科)를 졸업했으며, 1948년 7월 25일 별세할 때까지 작곡, 저술 등을 통해 실로 맹활약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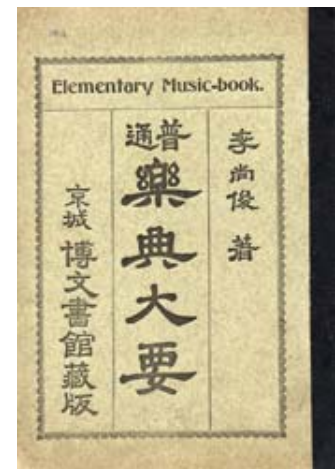
여기서 그의 많은 저서 중에서 첫째로 「조선속곡집 상권」의 목차를 소개한다.

- |                |           |            |           |
|----------------|-----------|------------|-----------|
| 1. 우조초수(羽調初數)  | 2. 한엽(葉)  | 3. 편(編)    | 4. 시조     |
| 5. 노군악(路軍樂)    | 6. 방아타령   | 7. 육자박이    | 8. 흥타령    |
| 9. 자근난봉가       | 10. 성주풀이  | 11. 정거장 타령 | 12. 개타령   |
| 13. 아르령타령      | 14. 몽금포타령 | 15. 학생타령   | 16. 경성흥타령 |
| 17. 산염불        | 18. 신식산보가 | 19. 신식운동가  | 20. 이팔청춘가 |
| 21. 남무아미타불가    | 22. 수심가   | 23. 양산도    | 24. 무당타령  |
| 25. 도라지타령      | 26. 꼭두타령  | 27. 숙천난봉가  | 28. 밤옛타령  |
| 29. 긴난봉가       | 30. 세월타령  | 31. 청개골이타령 |           |
| 32. 오호(五湖)타령   | 33. 낙들이   | 34. 영변가    | 35. 농부가   |
| 36. 영산회상 중 타령곡 | 37. 단가(1) | 38. 단가(2)  |           |



둘째로 「보통악전대요」의 목차를 소개한다.

- 제1장 보표
  - 제1절 보표의 성립과 그 위치, 제2절 대보표
- 제2장 음부기호
  - 제1절 고저양음부기호, 제2절 음명
- 제3장 음부
  - 제1절 단순음부, 제2절 부점음부, 제3절 복부점음부
- 제4장 휴지부
  - 제1절 단순휴지부, 제2절 부점휴지부
- 제5장 종선
  - 제1절 삼개종선의 명급모양(名及貌樣)
- 제6장 반복기호
  - 제1절 사개반복기호
- 제7장 박자
  - 제1절 평등박자, 제2절 불평등박자
- 제8장 변박자
  - 제1절 속도기호, 제2절 절분음과 결합음
- 제9장 고저와 장단연습
  - 제1절 장단연습, 제2절 고저연습
- 제10장 변화기호와 본위(本位)기호
- 제11장 주조음(主調音)
  - 제1절 영(英)주조음, 제2절 변(變)주조음
- 제12장 발상기호
  - 제1절 강약기호, 제2절 완급(緩急)기호



주3) 위의 책은 1922년 「보통창가집 3」 (박문서관 발행)으로 재발행되었으며 내용은 같다.

- 제13장 음
  - 제1절 음류(音類), 제2절, 음역, 제3절 인성의 음역
- 제14장 음계론
  - 제1절 음계의 종류, 제2절 아악음계
- 제15장 음정의 각론(各論)
  - 제1절 음정의 유(類)
- 제16장 음정의 전회(轉回)
- 제17장 협화음정과 불협화음정
- 제18장 화성론
  - 제1절 화현(和絃)
- 제19장 음계 각도(各度)의 명칭과 기(其)관계
  - 제1절 각음도의 명칭, 제2절 각음도의 관계
- 부록: 제1장 선율의 장식, 제2장 기보생략법, 제3장 곡조연습

특히 제14장 제2절 아악음계는 이 책의 가장 두드러진 특색이라 하겠다.

셋째로 「최신창가집」의 목차를 소개한다.

제1편

- 1. 君が代(일본국가) 2. 1월 1일 3. 기원절(紀元節) 4. 천장절(天長節)
- 5. 졸업식

제2편

- 1. 직업 2. 춘풍 -----이상 7곡은 일본말 가사임. 3. 접(蝶) 4. 의(蟻)
- 5. 시계 6. 우(雨) 7. 효순(孝順) 8. 사의 은(師恩) 9. 갈지라도
- 10. 춘래(春來) 11. 하 12. 앞으로 13. 하기휴업 14. 부모의 은
- 15. 해(海) 16. 학도 17. 수학여행 18. 안(安)1. 19. 안(安)2
- 20. 신년 21. 산천구경 22. 동 23. 추 24. 은사(隱士)
- 25. 운동가 26. 석별 27. 청산 28. 권학1 29. 권학2
- 30. 성(星) 31. 공부 32. 산수 33. 앵(鶯) 34. 야구가
- 35. 망향 36. 장미화 37. 관동팔경(關東八景)



번호 1, 3, 4, 5, 6, 8, 10, 11, 13, 15, 19, 20, 22, 24, 25, 26, 27, 30, 31은 이상준 작사.작곡(18곡)이고, 번호 7, 17, 23, 32는 다른 사람 작사의 이상준 작곡(4곡)이며, 번호 12, 16, 18, 21, 33, 34, 35, 36은 이상준 작사(8곡)이다. 이밖에 수많은 창가집과 조선고가집 등이 있고, 특히「나팔가곡집」(喇叭歌曲集)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소개는 다음으로 미루겠다.

### 김형준(金亨俊, 1884~?)

김형준은 1884년 12월 10일생(황해도 안악)으로서 송실중학교를 졸업한 후 진남포와 안악에서 교편생활을 하다가 1913년 서울에 올라와 협성신학, 피어선 성경학원, 경신학교, 정신여학교, 중앙고보, 경기공고 등에서 후진을 양성하다가 1950년 6.25사변중 이북으로 납치된 채 오늘날까지 그의 생사를 알 수 없다.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가곡인 흥난파 작곡의〈봉선화〉〈복숭아〉의 작사자로서 뿐만 아니라 가곡〈무덤에서〉와〈저 구름의 닻〉의 작사.작곡자로서 또는〈봉(蜂)과 접(蝶)〉〈구노의 세레나데〉,〈성모마리아〉〈슈베르트의 아베마리아〉,〈벚노래〉(불가의 벚노래)를 비롯하여 〈개와 고양이〉, 〈언제 만나볼거나〉,〈한강의 노래〉,〈평양의 왕〉등의 작가(作歌) 또는 역가(譯歌)로도 널리 알려져 있으니 작곡과 작사에 매우 능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무덤에서〉,〈저 구름의 닻〉의 소개는 다음으로 미루겠다.

한편 그는 이상준, 김인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이를 오선보로 채보했는데, 김인식이 우리 정악(正樂)중에서 기악합주곡에 관심이 있었고 이상준이 속악 중에서 성악곡에 관심이 있었는데 반하여, 그는 정악 중

에서도 성악곡에 관심이 컸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는 코넷의 명수였을 뿐만 아니라 명테너였고, 정사인(鄭士仁)과 함께 관악지도자로서도 음악계와 교육계에 많은 공을 세웠으므로, 1932년과 1947년에 김인식, 이상준과 함께 우리나라 양악계의 3대 공로자로 표창을 받은 바 있기도 하다.

사족을 단다면, 그는 우리나라 피아노계의 양대 산맥 중의 한 분인 김원복(金元福) 교수의 엄친이시다.